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Acceptance is outcomes without attachments, guilt, shame, remorse, self pity, resentment, fear, anger, etc. These are the tools of the disease of addiction. To maintain Recovery One must maintain a state of Acceptance. (Unknown)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애착, 죄책감, 부끄러움, 회한, 자기 연민, 분개, 두려움, 분노 등이 없는 결과이다. 이것들은 중독 질병의 수단이다.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작가 미상)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유난히도 축하해야 할 날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갑의 두께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달이기도 하죠. 가끔 사람들로부터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카카오톡을 통하여 많은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 받았던 내용 중에는 가족, 특히 부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 가장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사이가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
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사이,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위로
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이가 가족, 특히 부부 아닐까요?

그런데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는 일이나 재정적인 생활이 순
조로울 때는 부부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우선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로
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
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생각해
봅니다.

가족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에 어떤 때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이고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힘을 줍니다.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요?